

“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할 것”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서 부동산 적폐 청산 당부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 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공직 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찾아내고 엄단하기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찾아내며,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동의 86.1%

내달 1일 부터 접종 시작

4월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이들의 약 86%가 화이자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시설 입소·이용자의 경우 동의율이 93%를 넘어 일반 지역사회 거주 고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내달1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75세 이상 어르신 351만명 중 204만명(58.2%)에 대한 접종 동의 여부 조사를 완료한 가운데 이중 86.1%인 176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힌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시설 대상자 15만5000명 중에서는 9만7000명(62.7%)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이중 9만명(93.2%)이 동의했다.

이는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동의율 93.7%보다는 낮고, 같은 시설의 65세 이상 동의율 76.9%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다.

아직 대상자의 60%가량에 대해서만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율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추진단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5세 이상 어르신과 주거복지·주야간·단기보호 노인시설의 입소·이용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한국인 금융이해력 OECD 평균 넘어

주식 등 투자열기 영향 62%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재무 목표를 두지 않았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 교육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OECD 10개국 평균(2019년 조사) 62점보다 높았다.

비교 대상국은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포르투갈·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콜롬비아다.

2018년 조사 결과(62.2)와 비교해 2년 새 한국인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4.6점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 붐 등으로 금융·경제 관련 기사와 관련 관심이 늘어나고, 학생들까지 손쉽게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 대비와 관련된 금융태도 점수(60.1)는 오히려 2018년(61.3)보다 1.2점 떨어졌다. 이 부문에서 OECD가 권고하는 최소 목표점수(60.1점)에 이른 응답자의 비중은 39.9%에 불과했다.

특히 청년층은 경제·금융 차원의 미래 준비가 부족했다. 청년층의 34.2%는 ‘저축보다 소비 선호’에 동의해 반대 비율(26%)을 웃돌았다. 연합뉴스

‘백신 휴가제’ 접종률 향상 도움될까

내달 1일부터 시행... 민간부문 동참 폭이 관건 전문가 “자영업·일용직 노동자 지원책도 필요”

내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상반응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해 향후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백신 휴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사실상 휴가 사용이 힘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만약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통의 이상반응은 2일 이내에 호전되는 만큼 그 이상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접종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물론 항공 승무원 등 민간 부문에서도 백신 휴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관련 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휴가 사용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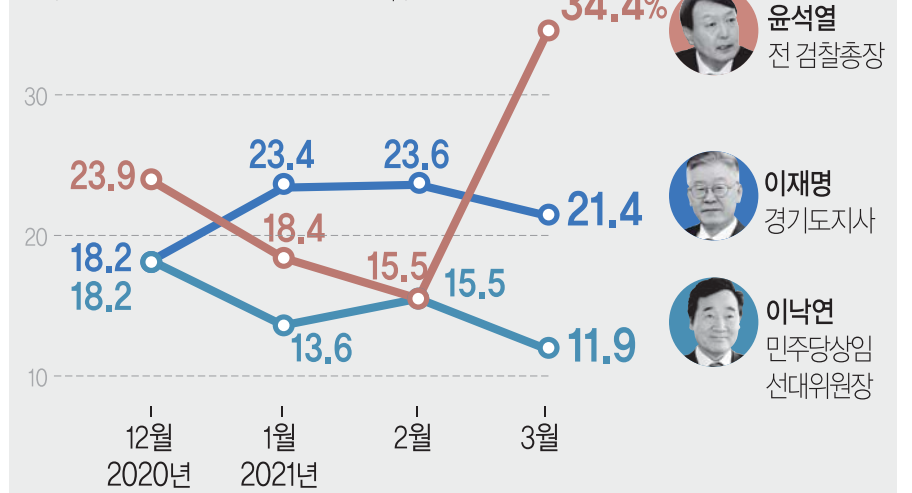
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백신 휴가 시행이 어렵지 않지만,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동참 폭이 백신 휴가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백신 휴가 제도가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오마이뉴스 의뢰로 3월 22일~26일 전국 18세 이상 2,547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1.9%p)



※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료/리얼미터

경축

의용소방대의 날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지역의 더욱 큰 안전지킴이가 되겠습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현 상호 · 문 경 순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고 향 심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양 지 수

서귀포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성 기 영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 봉 민